

2018년 12월 27일

KIWO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소매 유통업체 급등에 힘입어 강세 11/1~12/24 일 소매판매 전년 대비 5.1% 증가

미 증시 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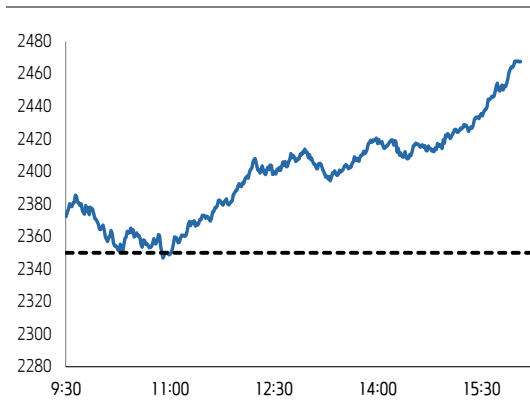
미 증시는 연말 쇼핑시즌 판매량이 6년내 최고치를 경신 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급등. 특히 변동성 확대를 부추겼던 선물옵션만기일(21 일)과 조기 장 종료(24 일) 이후 안정을 찾는 양상. 한편, 백악관이 파월 연준의장과 므누신 장관의 거취 논란을 해소하는 발표도 긍정적. 이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역사상 하루 상승폭으로는 최대치인 1,086.25pt 상승하는 등 급등(다우 +4.98%, 나스닥 +5.84%, S&P500 +4.96%, 러셀 2000 +4.96%)

최근 미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선물옵션만기일과 조기 장 종료 등이 겹치면서 수급적인 불균형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특히 국제유가가 지난 24 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가운데 6.7% 급락했으나,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8.7% 급등. 대체로 거래량이 급감하자 일부 매물로 시장이 왜곡되었으며 오늘은 되돌림 현상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음. 이런 가운데 11/1~12/24 일까지의 소비가 전년 대비 5.1% 증가한 850 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등 6년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된 점이 위험자산 선호심리 자극

이를 조사한 마스터카드는 미국 경제가 강력한 고용창출, 50 년내 가장 낮은 실업률 및 견고한 임금 상승,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소비 증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 특히 11/1~12/19 일까지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년 대비 18.3% 증가 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yoy +14.8%)를 상회. 특히 의류 판매가 16.5%, 전자제품, 보석, 백화점의 온라인 판매도 7~10% 증가 했다고 발표. 이를 토대로 동일점포매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견고한 소비 증가가 이어짐.

이러한 소비 증가를 토대로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화. 특히 아마존(+9.45%)을 비롯해 월마트(+5.35%), 타겟(+5.78%), 베스트바이(+6.90%) 등 소매 유통업체들이 미 증시 상승 주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28.01	-1.31	홍콩항셱	25,651.38	-0.40
KOSDAQ	665.74	-0.60	영국	6,685.99	휴장
DOW	22,878.45	+4.98	독일	10,633.82	휴장
NASDAQ	6,554.36	+5.84	프랑스	4,626.39	-1.45
S&P 500	2,467.71	+4.96	스페인	8,480.60	-0.89
상하이종합	2,498.29	-0.26	그리스	608.58	-0.80
일본	19,327.06	+0.89	이탈리아	18,397.19	-0.9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소비 관련주 급등

아마존(+9.45%), 베스트바이(+6.90%) 등 온라인 소매 유통 업체들은 연말 쇼핑시즌이 급증 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월마트(+5.35%), 타겟(+5.78%)을 비롯해 TJX(+5.26%), 메이시스(+7.03%), 콜스(+10.25%) 등 백화점 업체, 노드스트롬(+5.79%), L브랜드(+6.38%), 갭(+4.62%) 등 의류 판매 업종도 급등 했다. 홈디포(+6.41%), 로이어(+5.91%) 등 인테리어 업종도 동반 상승 하는 등 소비 관련 업종이 상승 했다. 이에 힘입어 UPS(+7.48%), 페덱스(+4.88%) 등 택배 업체도 상승 했다. 애플(+7.04%)과 부품주인 큐로브(+6.29%), 스카이웍(+6.26%) 등은 판매 증가 기대감이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나이키(+7.21%)도 상승 했다.

한편, 엑손모빌(+4.78%), 셰브론(+6.34%), 코노코필립스(+7.88%)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급등 하자 강세를 보였다. US스틸(+6.54%), AK스틸(+4.17%) 등 여타 원자재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보잉(+6.72%), 캐터필라(+6.68%) 등은 므누신 장관에 대한 재신임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을 높인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0.41%	대형 가치주 ETF	+4.44%
에너지섹터 ETF	+6.38%	중형 가치주 ETF	+4.17%
소매업체 ETF	+5.75%	소형 가치주 ETF	+4.17%
금융섹터 ETF	+4.53%	배당주 ETF	+2.87%
기술섹터 ETF	+5.95%	변동성 ETF	-5.05%
소셜 미디어업체 ETF	+3.38%	대형 성장주 ETF	+5.80%
인터넷업체 ETF	+6.96%	중형 성장주 ETF	+5.10%
리츠업체 ETF	+3.22%	소형 성장주 ETF	+5.58%
주택건설업체 ETF	+4.75%	신흥국 고배당 ETF	+1.75%
바이오섹터 ETF	+5.80%	신흥국 저변동성 ETF	+1.27%
헬스케어 ETF	+4.36%	하이일드 ETF	+1.70%
곡물 ETF	+0.12%	물가연동채 ETF	-0.20%
반도체 ETF	+5.62%	Long/short ETF	-0.7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3.26	+6.24%	-3.14%	-11.46%
소재	310.28	+4.62%	-1.70%	-7.95%
산업재	531.87	+4.80%	-4.11%	-9.73%
경기소비재	768.89	+6.28%	-3.04%	-6.55%
필수소비재	514.82	+2.84%	-4.05%	-8.18%
헬스케어	976.62	+4.54%	-2.05%	-6.59%
금융	387.71	+4.65%	-1.82%	-11.79%
IT	1,072.49	+6.05%	-3.72%	-6.45%
커뮤니케이션	137.92	+5.40%	-3.25%	-4.73%
유틸리티	265.79	+1.56%	-3.40%	-3.28%
부동산	191.43	+3.26%	-4.23%	-6.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기대

MSCI 한국 지수는 1.84% MSCI 신흥 지수는+2.0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874 계약)에 힘입어 2.15pt 상승한 259.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3.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견고한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에 우호적이다. 더불어 상품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 또한 긍정적이다.

특히, 백악관이 파월 연준의장과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해임설을 강력히 반대한 점도 긍정적이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므누신 장관에 대해 해임을 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신임을 표명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온건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임 표명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될 수 있어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한편, 한국 거래소는 12 월 결산법인의 현금 배당을 감안한 배당락 지수를 전일 대비 40.51p 낮은 1,987.50p 로 발표 했다. 이는 오늘 KOSPI 가 40.51p 하락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보험인 것을 의미 한다. 코스닥 또한 4.82p 낮은 660.92p 로 발표 했다. 그러나 미 증시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강세를 보인 점을 감안 매수세가 유입돼 실제 지수는 견고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주택가격 견조한 상승세 유지

미국 10 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5.0% 상승 했다. 이는 예상치와 부합되었으며 전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었다.

12 월 리치몬드 연은 지수는 -8 로 전월(14) 보다 크게 둔화 되었다. 특히 신규수주(17→9)가 급락했으며, 수주 잔량지수(15→18) 또한 급락했다. 무역분쟁에 따른 기업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한다.

12 월 기관 투자자 심리 지표중 하나인 SSIC 는 전월(82.6) 보다 둔화된 79.8 로 발표돼 기준선인 100 을 하회 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이 더욱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솟커버링 유입되며 급등

국제유가는 지난 24 일 6.7% 급락이 과도하게 하락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매수세가 유입되며 급등 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결과보다 솟커버링 증가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오자 반등이 시작 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연말쇼핑시즌 매출 증가를 감안 경기에 대한 자신감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부 솟커버링이 유입되는 등 수급적인 요인 또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요인에 힘입어 국제유가는 8.7% 급등 했다.

달러화는 셋다운 장기화 이슈 등이 여전하지만 주식시장이 상승하자 달러화 또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1 월 초에 회동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폭이 확대되었다. 한편,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달러 대비 약세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의 연말 쇼핑시즌 매출 증가에 따른 경기 자신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더불어 트럼프와 파월 연준의장이 1 월 초에 회동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 또한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5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7 배) 보다 낮은 2.09 배를 기록한 점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셋다운 이슈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여파로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구리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1%, 철근은 0.6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6.22	+8.68	-0.82	Dollar Index	97.057	+0.49	+0.02
브렌트유	54.47	+7.93	-3.18	EUR/USD	1.1353	-0.34	-0.20
금	1,273.00	+0.09	+1.55	USD/JPY	111.35	+0.94	-1.00
은	15.123	+2.04	+2.87	GBP/USD	1.2634	-0.32	+0.19
알루미늄	1,893.00	휴장	-1.66	USD/CHF	0.9958	+0.87	+0.12
전기동	5,955.50	휴장	-0.24	AUD/USD	0.7067	+0.44	-0.59
아연	2,474.00	휴장	-1.83	USD/CAD	1.3572	-0.15	+0.65
옥수수	373.25	-1.19	-3.18	USD/BRL	3.9272	+0.58	+0.46
밀	510.00	-1.26	-4.27	USD/CNH	6.8936	-0.01	-0.17
대두	883.00	-1.56	-4.10	USD/KRW	1125.40	+0.02	-0.37
커피	103.90	+1.66	+4.53	USD/KRW NDF1M	1122.55	-0.19	-0.5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08	+6.96	+5.31	스페인	1.397	0.00	+2.20
한국	1.937	-5.30	-3.30	포르투갈	1.677	0.00	+3.30
일본	0.022	+0.30	-1.30	그리스	4.330	0.00	+5.60
독일	0.250	휴장	+1.10	이탈리아	2.827	0.00	+5.80